



그대의 아침은 안녕한가요

성신고 1-1 이윤서

나에게 마음 찢어지도록 사랑을 주었던 그대가 나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떠난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대의 아침은 안녕한가요, 저의 아침은 그가 이별을 고했을 때보다 더 외로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그런 당신이 밍습니다. 당신은 마지막까지 매정했고 나에게 누구보다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사랑보다 외로움을 더 많이 준 당신이 나는 왜 지금까지 보고 싶을까요. 외로운 아침을 반길 생각에 좀처럼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대를 잊으려고 수없이 노력했습니다. 함께 손잡고 걷던 거리를 혼자서 걸어보고, 그대가 주었던 설렘을 혼자 생각으로 온전히 느끼며 외로움을 달래보곤 했습니다. 그 노력 끝엔 결국 사랑스럽다는 눈빛으로 쳐다봐 주던 당신이 있었고, 저는 하염없이 무너지기만을 반복했습니다. 서로 혐오스러울 만큼 싸우다가도 얼굴 한 번 마주 보면 아무 일 없던 연인들처럼 다시 좋아죽던, 서로 입속에 침이 메마를 때까지 사랑한다 말해주던, 집 앞 놀이터에 있는 허름한 그네를 어린이처럼 즐겁게 타다가 지칠 때면 함께 하늘에 별들을 보며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던 그 설렘 가득하던 목소리가.

행복하지만은 못했던 형편없는 내 열일곱에 불쑥 그대가 나타나 나에게 영원할 것 같은 무한한 사랑을, 처음 느껴보는 풋풋한 설렘을,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두려움이 쌓여도 곧바로 내 옆에 와 편안한 휴식처가 되어주는 그의 배려가, 당신을 잊지 못하는 이유이지 않을까요. 저에게는 영원한 사랑할 기억뿐인데.

그대에게 어떤 아픔이 있었기에 매정하게 나를 떠났나요. 왜 그댄 내게 이토록 차가운가요. 따뜻하던 그 큰 손으로 나를 보듬어 주던 그대가 그림습니다.

당신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나의 아침을 따뜻하게 반겨주는 해와 같다는 걸요. 저의 아침을 반기는 따뜻한 해가 없으니 저의 아침은 어둡고 너무나도 차갑습니다. 함께 약속한 사랑의 영원이 이제 혼자 쓸쓸하다 못해 고통스러운 영원으로 바뀐 것 같아 괴롭습니다. 저는 당신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그만 곁을 떠나길 바라겠지만요. 나는 우리의 어설픈 사랑 속에 취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가 아픈 만큼 그대도 아팠으면 합니다. 우리가 함께 걸었던 거리를 혼자 지나게 될 때, 거리를 걷다 우리가 함께 종종 들던 인디음악이 흘러나올 때, 문득 제가 떠올라 잠시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이기적인 저라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 글은 나에게 상처 주고 떠난 당신에게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전하는 편지인 걸요. 난 아직 그대가 밍습니다. 이 편지가 그대에게 온전히 전해질 순간까지 저는 그대를 사랑하고 있어요.

저의 아침은 그대 생각으로 가득해 괴롭습니다.